야권통합·연대시 민주당 '호남기득권'은?

지역구 5~6곳 양보 대상 거론

야권대통합 논의가 급류를 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호남 기득권 양보론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대통합 논의가 성과를 거둘 경우, 호남의 5~6개 지역구가 민주당의 기득권 양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년 총선 민주당의 호남 기득권 양보 방안과 규모 등을 조명해 봤다.

◇**호남 기득권 양보 방안은**= 우선 지난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같은 민주당이 아예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등 소수 야당이나 시민사회 세력에서는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경선을 주장한다면 그 자체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권대통합이나 야권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순천에서처럼 민주당의 통 큰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공천 방식은 호남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광주일보가 지난달 30일 실시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20명 전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만 제외하고 '무공천' 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야권대통합을 내세우고 있는 '통합과 혁신' 측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기득권 양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일 혁신과 통합 상임 대표인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통합 정당 출범과 관련한 지역구 공천 문제에 대해 "소수 야당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의원이 없거나 공석이 되는 여유 지역구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호남 기득권 포기론과 관련,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통합 정당이 된다면 호남의 빈 자리(지역구)에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명하지 않고 모든 후보들이 경선을 하면 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합이나 야권연대가 현실화된다면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전략공천 등을 통해 호남 기득권 양보가 강제로 실현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기득권 양보 규모는**=적게는 3석, 많게는 6석이 거론되고 있다.

당장 김효석, 정세균 의원의 서울 지역구 출마 결정으로 자리가 빈 구곡담(구례·곡성·담양)과 무진장임(무주·진안·장수·임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시 등 3곳이 민주당 기득권 양보 지역구로 거론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광주일보 설문조사에서 "순천은 야권연대의 상징이며 순천에서 야권연대를 흔든다면 전국적 야권연대는 파탄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한 번 기회를 줬으면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곡담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주자들도 야권대통합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야권대통합이나 야권연대가 이뤄진다면 민주당이 호남 지역구 가운데 5~6곳을 타 야당이나 정파에 배려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합 정당이 현실화된다면 지도부가 각 정파별로 구성되는데다 야권연대시에도 민주당의 기득권 양보가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1~2곳, 전남에서 2곳, 전북에서 2곳 등 호남 5~6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기득권을 양보하거나 최소화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는 야권 통합 및 연대의 상징적인 지역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기득권 양보 요구가 거세게 제기될 것"이라며 "광주·전남 국회의원 지역구 가운데 3~4곳에서 민주당의 기득권 양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 대통합은 이에 참여하는 주체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할 때 성공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손학규 조건부 대선 불출마설' 공식 부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야권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대선 불출마 선언'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 정가에 파장이 일었다.

조선일보는 2일 손 대표가 이르면 오는 4일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과 야권 통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여기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손 대표 측 핵심인사가 전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바빠서 기사를 못 봤다.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손 대표는 야권통합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손 대표의 조건부 대선 불출마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는 그러나 기자들이 '손 대표의 조건부 대선 불출마가 야권통합 방안 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이 아니냐'고 묻자 즉답을 피한 채 "하여튼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손 대표 측 관계자 역시 "측근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말일 수는 있어도 실제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며 "대선 후보가 되는 것보다 야권통합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 대표의 다른 측근은 이날 "손 대표가 오래전부터 그런 고민을 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더 큰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아야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야권 통합이 안 되면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생각도 검토됐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김부겸, 광주서 청년 100인 원탁회의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주최하는 '청년 100인 원탁회의'가 3일 오후 7시 광주 YWCA 1층 강당에서 '민주당 혁신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날 참석한 100명은 토론을 한 뒤 민주당 위기 원인과 위기 극복 방안 등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다.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광주 원탁회의' 준비팀이 사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지역 청년들이 느끼는 민주당에 대한 염증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 원인으로 기존 정치인들이 지역과 조직을 기반으로 공고하게 기득권을 지키고 있어, 젊고 참신한 정치인의 진출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이낙연,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 수상

민주당 이낙연 의원(함평·영광·장성)이 지난 1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으로부터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법안발의와 통과 수, 회의 및 표결 출석률, 지역구 공약이행 실천 등 18대 국회 의정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유권자연맹의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 수상자는 이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여야 의원 20명으로, 광주·전남 의원 중에서 이 의원이 유일하게 수상했다.

'혁신과 통합' 전남 준비위원장에 박선원씨

'혁신과 통합' 전남지역 준비위원장에 노무현 전 대통령 통일안보비서관을 지낸 박선원씨가 추대됐다. '혁신과 통합' 전남 준비위는 지난 1일 광주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박 전 비서관을 위원장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나주 출신인 박 위원장은 영산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 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서실장으로 활동중이다. 박 위원장은 나주·화순에서 19대 총선 출마를 준비중이다.

문상필,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지원비 삭감 반대

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2일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시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지원비 삭감 협상을 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애초 도시공사는 빛고을골프장 수익금을 건강타운 지원비로 주기로 해놓고는 전년도 운영수익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금 12억원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원비 삭감 협상을 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정칠현기자 chjung@

이인영 "광주가 선도땐 중앙정치 통합 탄력"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2일 "야권 대통합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의 야당 정치질서를 재편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을 책임지는 통합적 수권정당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권통합과 관련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대통합에 대한 열망이 반영됐다"며 "민주당 외에 혁신과 통합,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노동·농민세력 모든 사람이 참여해 야당의 새판짜기 시점에서 야당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통합적 수권정당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광주는 승패에 대한 전략적 선택 이전에 가치에 대한 수호를 먼저 추구했다"며"광주에서 통합을 선택해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통합작업을 선도한다면 중앙정치의 통합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광주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야권통합 갈등 조짐

비주류 "공개적 의견 수렴절차 없다" 불만

민주당이 야권 통합 방법론을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큰 불만은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일 현재까지 야권 통합 문제에 대해 의총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당내 비주류 모임인 '민주희망 2012'는 성명에서 "야권 통합에는 어떤 야합이나 밀실협상도 용납될 수 없다. 당 지도부는 그간의 논의 내용과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자체 로드맵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팽배하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말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지도부는 전당대회 일정을 포함해 민주당의 진로와 통합에 이르기까지의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당대회 방식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전당대회를 개최한 뒤 다른 세력과 통합하는 방식과 민주당이 정체성이 맞는 정당 등과 통합 전당대회를 실시하고 대통 대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통합 대상을 놓고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지도부는 혁신과 통합·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과의 대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진보정당은 연대의 대상일 뿐 통합의 대상은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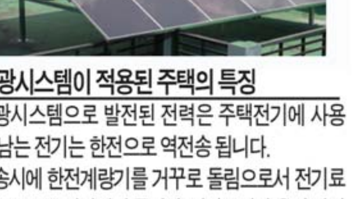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친환경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돈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는 전기는 한전으로 역전송 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료를 약 80~90% 전약시켜 줍니다. 비가오거나 흐린 날씨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절감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클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기존청구요금(사용전력량: kWh)일때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센터 입니다. 해마다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일주일 이내에 설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금액 : 680~880만원 [설치비포함]
(설치 여건 등에 따라 차등)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텍 ☎062-512-1180/ H.P 011-659-7001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스타박스빌딩매매(8층)
-분양면적 : 450평
-전용면적 : 300평
-매매금액 : 13억원
-모든 업종 가능

상무지구
빌딩 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 : 4억3천만원
/월2200만원
-융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3억5천만원/월 650만
-융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수완지구 상가 분양 임대 전문

학원·병원·한의원·고급식당
독서실·PC방·노래방·실내골프장
1층 근린생활 2층~ 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즉시입주가능 시비없음
국민은행뒤 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뒤 모아엘가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건축시공해드립니다★

(원룸·상가·고시원·도시형 주택전문)
• 수익성상가 • 안전한재산증식
• 노후보장 • 퇴직자 환영
설계·건축·분양 임대
(검토부터 기획마감까지 원스톱)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해드립니다.
★원룸 상가 기타 건축할수 있는 토지 항시 구합니다★

대신종합건설
☎010-6670-9800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감정가2억 6천만 최저가1억8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앞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감정가 4억8천만 최저가 3억8천만
· 서구 쌍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감정가 4억2천만 최저가 2억9천만

단독주택
· 광산구 운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감정가 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감정가 4억5천만 최저가 3억1천만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안집(도시가스,리모델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

토지매매
·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임야 1200평 진입로있음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능)
·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외기해수욕장앞 101평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